

만화에 나타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고찰 -채지충의 유교만화에 나타난 덕목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image communication in cartoon -Focusing on Virtue in cartoon on Confucian Thoughts of Tsai Chih Chung-

장재진(동명대학교)

차 례

1. 서론
2. 만화와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3. 오상(五常)의 이미지 표현
4. 결론

■ keyword : image communication | the five constant virtues | the picture Language | a written language |

1. 서론

만화(漫畫)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야기 따위를 간결하고 익살스럽게 그린 그림에 대화가 삽입된 것”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 형태나 사건의 성격을 과장 또는 생략되게 표현함으로써 웃음의 소재나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회화(繪畫)”라고 정의된다. 그래서 만화는 인간 삶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사실적 표현이나 은유와 비유가 담긴 의미전달의 매체이다.

일반적으로 만화는 그림과 글로 구성되어 의미를 전달하는 복합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시각적인 미술요소인 ‘그림’과 언어적인 요소인 ‘글’의 혼합적인 전달은 독자로서 하여금 한 가지의 매체만이 전달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학습효과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학습효과를 가장 잘 전달했다고 보이는 만화가 중의 한 사람이 ‘채지충’¹⁾이다. 논자는 ‘채지충의

만화’ 중에서 유교의 윤리덕목에 관한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을 ‘채지충’이 글과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고찰하고 이것이 지니는 형상예술의 의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채지충의 만화는 교육적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특히 유교나 불교 도교 등의 경전을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만화의 형식으로 만화읽기와 창의성이 보완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유교의 덕목인 ‘오상’과 ‘덕’에 대한 원전의 내용을 어떻게 형상화 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만화와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2.1 만화와 형상예술

회화와 같이 시각적인 형태를 갖춘 예술을 형상예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상예술은 조각이나 회화뿐 아니라 언어에 있어서도 형상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1]

형상에 대한 부정이 언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불교적 사유와 달리 현실의 참여와 이에 대한 질서를 강조한 유교적 사유는 형상예술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과 글, 즉 회화적 요소와 언어적

1) 1948년 타이완 출생으로 《논어》, 《노자》, 《장자》, 《손자》, 《사기》, 《서유기》, 《채근담》 등의 작품을 발표한 중국 최고의 만화가다. 단순한 고전 해석을 넘어 유머와 해학이 담긴 필치로 어렵고 지루한 고전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그는 동양적 그림체와 탄탄하고 유풀 있는 입담으로 중국,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에 출간되어 중국 만화의 입지를 한층 끌어올렸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불교 공부에 전념하여 《반야심경》, 《부처님 이야기》, 《법구경》 등을 출간했고, 2001년 이후에는 《고양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BE A WINNER》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21세기를 살아가

는 현대인들의 대처법과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채지충 글 그림/정광훈 옮김, 『채지충의 유교 사상 이야기』, 김영사, 2013년)

요소의 이중적 표현으로 나타난 만화에 담긴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언어만으로 전달되거나 회화만으로 전달되었을 경우에 대상에 대한 수준이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전달의 효과가 두 가지의 이중적 표현에 의한 것보다 감소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언어와 그림으로 구성된 만화의 경우 재미나 흥미를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기도 한다. 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학습적인 텍스트인 경우는 만화가 이를 잘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2.2 형상예술과 커뮤니케이션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저서 『의미의 논리』에서 언어가 갖는 표현력의 한계에 대해 “언어로 표출된 소리는 입을 통하여 명령어로 튀어 나오며, 완전하고 순수한 생성에 지극히 모자란다. ‘나무는 푸르러진다’라는 동사로 인하여 순간적인 사태를 포착하려하지만, 실상 푸르러지는 현상을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인간이 말이나 글을 접했을 때 지각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지탱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2]

언어는 진리의 속성을 추상개념을 통해 논리적으로 규정되고 전달하는 개념 언어와 형상을 통해 감성적으로 묘사되고 전달되는 형상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는 수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넘어선 인식을 열어주기 위해 형상의 성질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언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 형상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3]

특히 종교적 가치나 철학적 가치를 함의한 내용들은 개념 언어나 형상언어 두 가지 다 표현과 전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이라는 회화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만화는 전달 방법이나 그 대상에 대한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3. 오상(五常)의 이미지 표현

3.1 오상에 대한 ‘글과 그림’의 이미지

오상(五常)은 유교에서 사람이 항상 지켜야 할 5가지

윤리적 덕목을 말한다. 한대(漢代)의 동중서(董仲舒)가 앞서 맹자(孟子)가 주창한 네 가지 덕목(德目)에 신(信)을 더하여 오상의 덕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仁)’은 공자(孔子)의 중심 사상으로 선(善)의 근원, 행(行)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인’이 공자에 의해 실친 윤리의 기본 이념이 되면서 일체의 덕목을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다. 공자는 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방법론을 제시 했지만 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내리지 않았다.[2]

그래서 ‘인’을 개념 언어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공자는 효(孝)·제(悌)·예(禮)·충(忠)·서(恕)·경(敬)·공(恭)·관(寬)·신(信)·민(敏)·혜(惠)·온량(溫良)·애인(愛人) 등의 개념을 통해서 ‘인’을 이해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인’에 대한 정의는 아니다.

회화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의 이중적 구조로 전달되는 만화에 함의된 ‘인’에 대한 이미지가 곧 형상예술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념 언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채워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 언어가 지니고 있는 수준이나 이를 학습하는 대상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글과 그림을 동시에 표현하는 만화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인(仁)’이 공자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이긴 하지만 ‘의·예·지·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덕목이다. 오상과 덕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가 『논어』와 『맹자』의 어떤 구절을 언어와 회화로 표현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2 ‘인·의·예·지·신’의 이미지

3.2.1 인(仁)

채지충의 만화 『유교 사상 이야기』에서 ‘인’을 표현하는 내용은 『논어』의 ‘이인(里仁), 용야(雍也), 술이(述而), 자한(子罕), 위령공(衛靈公)’편과 『맹자』의 ‘이루(離婁), 진심(盡心)’편에 나오는 내용을 글과 그림의 형상으로 표현했다.[4][5]

이인(里仁) 17장의 “어진이의 행동을 보고는 그와 같이 생각하며, 어질지 못한 이의 행동을 보고는 안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용야(雍也) 21장의 “어진사람은

2) 《설문 說文》에 따르면, 인은 ‘인(人)’과 ‘이(二)’의 두 글자가 합해서 된 것이며, ‘친(親)하다’는 뜻이다.

고요함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편안히 오래 산다.” 술이(述而) 6장의 “인생은 인애(仁愛)를 따르고, 육예(六藝)에 노닐어야 한다.” 자한(子罕) 28장의 “인자는 근심하지 않는다.” 위령공(衛靈公) 35장의 “인을 행해야 할 일이 있으면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의 내용을 표현했다.



▶▶ 그림 1. 인(仁) 자한편 28장 ▶▶ 그림 2. 인(仁) 용야편 21장



▶▶ 그림 3. 仁과 不仁(이인편 제1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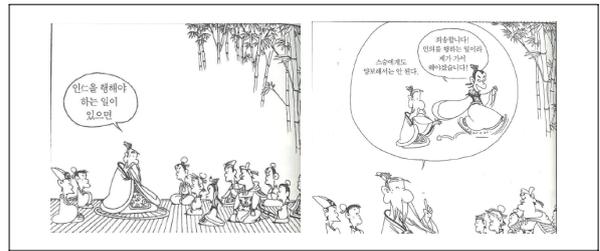
▶▶ 그림 4. 인(仁) 용야편 21장



▶▶ 그림 5. 인(仁) 용야편 21장



▶▶ 그림 6. 인애(仁愛) 술이편 6장



▶▶ 그림 7. 인(仁) 위령공 35장

『맹자』의 ‘이루(離婁) 하 19장의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이 인의(仁義)를 따라 행하신 것이요, 인의를 행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진심(盡心) 상 45장의 “군자가 물건에 대해서는 사랑하기만 하고 仁하지 않으며, 백성에게 대해서는 仁하기만 하고 親하지 않으니, 친척을 친히 하고서 백성을 仁하게 하고, 백성을 仁하게 하고서 물건을 사랑하는 것이다.”의 내용을 표현했다.



▶▶ 그림 8. 인(仁) 이루편 하 19장



▶▶ 그림 9. 인(仁) 이루편 하 19장



▶▶ 그림 10. 인(仁) 진심하 16장



▶▶ 그림 11. 인(仁) 진심하 16장



▶▶ 그림 12. 인애(仁愛) 진심상 45장



▶▶ 그림 13. 인애(仁愛) 진심상 45장

3.2.2 의(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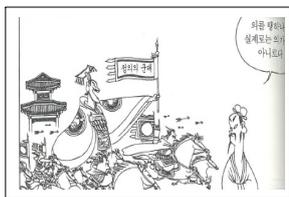
의(義)에 대한 내용은 『논어』의 자한(子罕) 28장의 “지혜로운 자는 의혹하지 않고, 仁한 자는 근심하지 않고, 용맹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맹자』의 이루(離婁) 하 6장의 “義가 아닌 義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 고자(告子) 상 4장의 “仁은 내면에 있고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며, 義는 외면에 있고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10장의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義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진댄 삶을 버리고 義를 취하겠다.”이다.



▶▶ 그림 14. 의(義) 자한편 28장



▶▶ 그림 15. 의(義) 고자 상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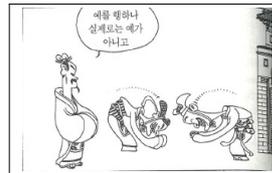
▶▶ 그림 16. 義(不義) 이루편 하 6장



▶▶ 그림 17. 의(義) 고자 상 10장

3.2.3 예(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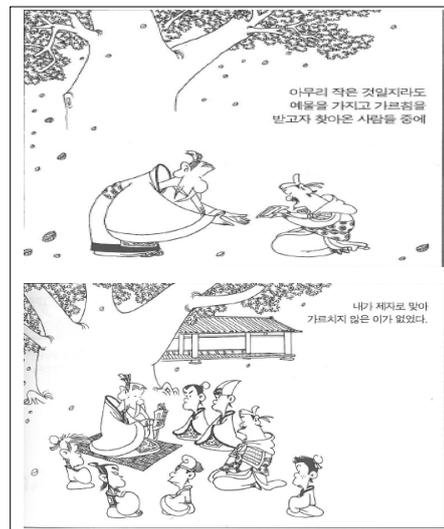
예(禮)에 대해서는 『맹자』의 이루(離婁) 하 6장의 “禮가 아닌 禮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와 『논어』의 술이(述而) 7장의 “脯 한 束 이상을 가지고 와 집지의 예를 행한 자에게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자가 없었다.”의 내용이다.



▶▶ 그림 18. 예(禮) 이루편 하 6장



▶▶ 그림 19. 예(禮) 이루편 상 17장



▶▶ 그림 20. 예(禮) 술이편 7장

3.2.4 지(知)

지(知)에 대한 내용은 『논어』 자한(子罕) 28장의 “지혜로운 자는 의혹하지 않고” 용야(雍也) 21장의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장수한다.”이다.



▶▶ 그림 21. 지(智) 자한편 28장



▶▶ 그림 22. 지(智) 용야편 21장



▶▶ 그림 23.
지(智) 용야편 21장



▶▶ 그림 24.
지(智) 용야편 21장

3.2.5 신(信)

신(信)에 대해서는 『맹자』의 진심(盡心)장구 하 3장의 “「書經」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면 「書經」이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이 내용을 표현했다.



▶▶ 그림 25.
신(信) 진심편 하 3장



▶▶ 그림 26.
신(信) 진심편 하 3장

채지충은 오상(五常)에 대한 덕목을 표현하면서 덕(德)을 많이 표현했다. 공자는 “충(忠)과 신(信)을 주로 하여 의(義)로 읊아감이 덕(德)을 높이는 것이다.(『논어』 「안연」)”라고 하여, ‘덕치(德治)’를 제창하고, “덕(德)으로써 정치를 할 것(『논어』 「위정」)”을 요구했다. 또한 『맹자』의 진심(盡心) 하에서는 “행동과 용모와 돌아다남이 예(禮)에 맞는 것이 왕성한 덕(德)의 지극함이다.”라고 하였다.[6]

이와 같은 덕에 대한 이미지와 설명은 『논어』의 「위정」 1장, 「이인」 25장, 「현문」 35장, 『맹자』의 「공손추」 상 3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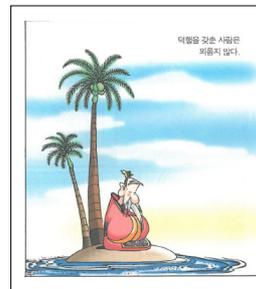


▶▶ 그림 28. 덕(德) 위정편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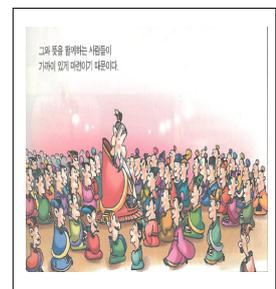


▶▶ 그림 27. 덕(德) 위정편 1장

『논어』 「위정」 1장의 “정사를 덕으로 행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못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의 표현이다.



▶▶ 그림 29.
덕(德) 이인편 2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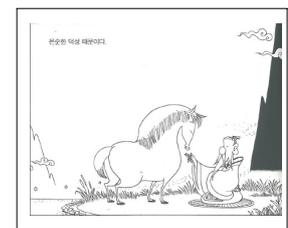


▶▶ 그림 30.
덕(德) 이인편 25장

『논어』 「이인」 25장의 “덕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의 표현이다.



▶▶ 그림 31.
덕(德) 현문편 35장



▶▶ 그림 32.
덕(德) 현문편 35장

『논어』 「현문」 35장의 “준마는 그 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칭찬하는 것이다.”의 표현이다.



▶▶ 그림 33.

덕(德) 공손추편 상 3장



▶▶ 그림 34.

덕(德) 공손추편 상 3장

『맹자』의 「공손추」 상 3장의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키는 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요, 덕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자는 중심으로 기뻐서 진실로 복종함이니 ... 복종하지 않은 이가 없다.”의 표현이다.

『논어』와 『맹자』에서 언급된 유교의 ‘오상(五常)의 덕목’과 ‘덕(德)’의 이미지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을 형상화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채지충이 묘사한 위의 내용이 덕목의 내용을 충분히 묘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어려운 문체로 된 고전은 전문적인 학자의 경우에도 그 진의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만화의 대중화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제한된 조건에서 같은 텍스트의 스토리를 그림과 글이라는 텔링을 통한 전달은 만화읽기의 긍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회화적 요소인 그림과 언어적 요소인 글의 이중적 구조로 이루어진 만화에 함의된 형상예술을 유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이의 실천 덕목 중 대표적인 오상(五常)과 덕(德)의 이미지 표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논어』와 『맹자』에 언급되는 오상(五常)의 덕목은 채지충이 회화와 언어의 이중적 구조로 전달되는 만화를 통해 표현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일부를 채지충은 위트 있는 자기만의 화법으로 쉽고 간결하게 대중에게 전달했다고 보인다. 『논어』와 『맹자』를 비롯한 고전은 해석하기 따라서 방대하기도 하며 철학적 접근에서 보면 난해하고 어려워져서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와 같

은 상황을 채지충이 만화를 통해서 유교 사상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1] 이진오, 「형상언어를 통한 불교 경계의 표현과 예술」, 『한국미학예술학회지』 제23호, 한국미학예술학회, 참고, 2006년
- [2] 질 들뢰즈 저/이정우 역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년
- [3] 이진오, 「형상언어를 통한 불교 경계의 표현과 예술」 『미학예술학연구』 23호, 한국미학예술학회, pp.33-34. 2006년
- [4]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년
- [5] 성백효 역주,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년
- [6] 김승동 편저, 『유교·중국사상사전』, 부산대학교출판부, 2003년

저자 소개

● 장 재 진(Jae-Jin Jang)

정회원



- 2006년 8월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철학박사수료)
- 2011년 8월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지역문화학과(국제지역학박사)
- 2013년 9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014년 1월 ~ 현재 : 부산시, 김해시 주관 '허 왕후 신행길 관광상품화 추진협의회 위원'

<관심분야> : 관광, 교육, 종교, 문화 콘텐츠, 융복합 콘텐츠